

NAJU
*Web
Contents*

2021년 10월 28일 11시 49분

목차

목차	2
나주시 소식	3
나주시, SRF 품질검사 결과 투명 공개 촉구	3

나주시, SRF 품질검사 결과 투명 공개 촉구

2021.07.06 조회수 164 등록자 나주스마트생태관리자

정찬균 부시장 열병합발전소 방문
복수 조사관 참여·시민 등 참관 요구



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에 사용되는 고품연료제품(SRF) 품질 검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사 참관과 투명한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난방공사는 지난 1일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에 나주SRF열병합발전소에 반입된 SRF 품질검사를 의뢰,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균 나주부시장은 지난 2일 오전 발전소를 방문, 법과 원칙에 따른 SRF의 투명한 관리와 검사 결과 공개를 난방공사 측에 강력 요청했다.

정 부시장은 공사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달 장성 야적장 긴급 점검을 통해 드러났듯 발전소 가동에 투입되는 SRF의 품질 적합성에 대한 지역사회 불신이 팽배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부시장은 “품질 검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복수 조사기관 참여와 행정과 시민, 언론 등의 참관,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주시는 지난 달 15일 광주시 생활폐기물로 만든 비성형 SRF를 야적, 보관 중인 장성군 복합물류터미널을 긴급 방문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SRF터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염된 침출수와 약취 등 부실한 관리 실태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특히 난방공사는 2017년 SRF 제조 당시 첫 품질 검사 실시 이후 3-4년 간 최소 11차례 내지는 최대 15차례에 달하는 의무 정기 검사

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 5)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보관 중인 SRF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절차와 검사 주기에 따라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주시는 점검 당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부적정한 SRF 사용에 따른 난방공사의 발전소 가동 중단과 비성형SRF에 대한 품질 검사 실시를 촉구했다.

광주매일신문/ 나주=정종환 기자

목록

이전글

나주시,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 일시 지급

다음글

나주, 영강동 도시재생 꽃 피우다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NAJU

Web Contents

